

야 하니 손님을 끌기도 어렵고, 젊은 직원들을 구하기도 힘들었어.

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‘제주에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, 우리 식당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지?’라는 존재이유, 즉 미션을 고민하게 됐지. 그리고 고심 끝에 ‘우리는 뽕소라 지킴이’라는 사회적 명분을 찾은 거라. 그러자 구성원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, 식당도 자기다움이 더 강해졌어. 사라져가는 해녀와 청년 예술인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드니 감동이잖아.

이제는 예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극장식 식당을 하나 더 만들었어. 물론 해녀들이 잡은 천연 해산물도 제값에 전국으로 팔리고 있고.

미션이 존재이유라면, 골(goal)은 계량적 목표야. 이것도 매우 중요해. 성과 점검 차원에서 매출액과 이익이 얼마고,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는 잣대가 되니까.

비전(vision)은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의 꿈이야. 설령 실현 가능성은 낮더라도 원대한 꿈을 갖고 멀리 보는 거지.

일론 머스크는 왜 자꾸 화성에 간다고 해? “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.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”라고 했어.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“우리는 이 우주에 조그마한 흠집을 남기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.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(We are here to put a dent in a universe. Otherwise why else even be here?)”라는 멋진 말을 했지.

이처럼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담긴 담대하고 가슴 설레는 공동목표라야 비전이라 할 수 있어. 판타지가 들어 있어도 좋아, 흥미를 더 크게 유발하니까.

지금 우리나라 기업 아무 데나 좋으니 검색해서 홈페이지 열고, 회사소개에 나오는 비전들을 한번 볼까?

“우리는 존엄한 인간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.” 멋있는 말인데, 구성원들의 마음에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지? 또 다른 회사